

##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아파트 내·외부 공간 요구도

전 유 진\*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석사과정)

김 진 영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강사)

강 순 주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근로조건 개선의 측면에서 여가증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근로시간단축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단순한 토요일 휴무제도가 아니라 삶의 중심축이 일에서 개인 생활로 전환됨을 의미하며, 기본적인 생활 패턴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인해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 특히 아파트에서 여가활동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서울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20~50대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아파트 내·외부 공간의 요구도는 내부공간에서는 디지털 홈 도입의 안전한 보안 서비스(4.13/5점)와, 발코니 수납의 극대화(3.97/5점), 침실의 전용화(프라이버시 존중, 3.95/5점), 거주자의 기호에 맞는 가변형 공간(3.80/5점)에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외부공간에서는 산책로(4.29/5점), 조깅 코스(4.24/5점), 헬스센터(4.11/5점), 정자, 벤치 등(3.98/5점)에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내부공간에서는 디지털 홈도입으로 인해 아파트 내부공간에서 여가활동을 더 즐길 수 있는 요구와 더불어 개인적 휴식을 위한 프라이버시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외부공간에서는 건강 및 아파트 거주자들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간 요구도 차이는 50대 이상의 거주자는 드레스룸 및 파우더 룸 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반면, 10·20대는 영화/음악 감상 공간, 인라인 스케이트 공간 등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소득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수납공간의 시스템화와 드레스룸 및 파우더, 아일랜드형 주방가구 설치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 5일 근무제의 확산과 이로 인한 여가 시간의 증가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기 위하여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적극적인 아파트 내·외부 공간 계획이 요구된다. 따라서 건설개발주체(공급자)는 주거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고려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아파트 내·외부공간 계획이 필요하다.